

# 양돈산업 발전 위해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경북도협의회



▲ 경북도협의회 및 양돈자조금대의원 간담회를 기념하여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하태식 부회장,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조합장을 비롯해 김성곤 도협의회장 및 경북지역 시군 지부장, 양돈자조금 대의원 등이 기념사진에 함께 했다.

글 · 사진 - 오유환

경상북도는 돼지 생산량이 전국 3위를 차지하며, 한우는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한·미 FTA와 급격한 폐사증가와 돈가하락이라는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양돈 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국내 양돈농가에 스테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등 농가경영을 흔들고 있다. 현재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료업체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사료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그 이후에도 인상요인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올해에만 다시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생산 비용에서 사료가격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돼지의 경우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 외에도 2012년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해양배출비용 증가 역시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기름값도 양돈 농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면에 출하가격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산지평균가격이 2006년 28만원대에서 지난해 말 22만원대로, 올해 다시 19만원대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은 정체되어 손해를 보고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돼지의 경우 최근 3년간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타격은 더욱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지원 방침 발표는 가뭄에 샘물과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도협의회를 찾아 이에 대한 경북지역 양돈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위기극복 하자

경북 양돈업 위기 돌파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양돈인들이 함께 했다.

경북도협의회(회장 김성곤)는 지난 2월 15일 대구 대구경북양돈농협 3층 회의실에서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하태식 부회장,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조합장을 비롯해 김성곤 도협의회장 및 경북지역 시군 지부장, 양돈자조금 대의원 등 40여명의 양돈인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양돈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코자 경북도협의회 및 양돈자조금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곤 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돈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북 7개 지역의 지부장님들이 새롭게 선출되었다”며 “어려울수록 양돈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경북 양돈업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양돈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수위의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며 “양돈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양돈협회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농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조합장도 “양돈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협회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처럼 양돈조합과 협회 그리고 양돈농가가 뽄뽄 뭉쳐 위기극복의 기회를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협의회에서는 최근 양돈현안에 대한 자유토론과 함께 협회 이사로 최재철 성주지부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는 한편, 올해 새롭게 선출된 이상용 고령지부장, 김창기 포항지부장, 심병철 영주지부장, 최인도 김천지부장, 박용대 영천지부장, 박종수 문경지부장, 이인호 구미지부장 등 7명의 신임 지부장이 양돈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2월 15일에 열린 경북도협의회 및 양돈자조금 대의원 간담회에서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양돈인들은 양돈산업 관련 세제 완화와 지원대책 그리고 장기간 파행사태를 빚어왔던 양돈자조금사업의 정상화에 협력과 역량을 결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사료가격, 1년 사이 40% 꺾증 인상

경북도협의회에서 만난 김건년 안동지부장은 요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경북 안동에서 돼지 7,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MSY 20두 수준인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돼지 한 마리를 팔면 오히려 3만원씩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현재 1,000두 규모의 양돈농가가 보통 월50톤의 사료를 쓴다면 현재 사료비를 450원/kg로 계산할 때 매달 2천~2천5백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2006년 12월 까지만 해도 한달 사료비가 1억 2000만원이던 것이 올 2월에는 1억 8000만원으로 50% 가량 상승했다. 김 지부장은 “돼지 한 마리를 6개월간 키우는데 사료비만 18만원이 든다. 거기에 분뇨처리비 2만원, 인건비 2만원, 약품비 1만원, 수도광열비 1만 5천원이 들어 생산원가만 24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현재 22만원에 출하하기 때문에 마리당 2~3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사료부채로 인한 농가 부담 심각

김 지부장은 자신과 같이 MSY 20두 수준의 생산성 상위그룹 농장들도 적자를 보는 형편이니 빠른 시일 내에 돈가가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많은 농가들이 도산이나 폐업 등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더욱이 양돈농가들은 대개 축사를 건립해 유지하고, 값비싼 사료를 몇 톤씩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너나 없이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사료의 경우는 담보를 조건으로 사료회사로부터 외상 형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몇 천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축산농가의 상황악화로 사료회사도 외상 한도를 줄이거나 현금을 요구해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사료안정기금 1조원 지원 소식

지난 15일 경북도협의회에서 만난 양돈인들의 주요 관심화제는 역시 최근에 축산농가에 사료구



▲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등이 올해 새롭게 선출된 경북지역 지부장들과 기념사진을 함께 했다. 왼쪽부터 하태식 부회장, 이상용 고령지부장, 김창기 포항지부장, 김동환 회장, 심병철 영주지부장, 최인도 김천지부장, 박용대 영천지부장, 박중수 문경지부장, 박해준 대구경북양돈조합장,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 이인호 구미지부장, 정선현 전무이사.

매자금 1조원을 특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였다. 양돈농가는 물론 사료업체에서는 사상유례없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만난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기엔 많은 기대를 안고 있었다.

김성곤 경북도협의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시적이거나 사료가격 구매자금 지원을 환영하지만 이를 통한 지원금액이 농가 부채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농가 대부분이 현행 농신보 규정 개인한도 최대치에 이르거나 담보여력이 없는 만큼 기존의 대출기준 아래에서는 자금혜택은 그림의 떡과 같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신보 개인한도 확대와 담보요율 대폭 증가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농가 현실감안 대책 마련 기대

이병규 경북도협의회 사무국장(본회 감사, 청도지부장) 역시 “현재 한도를 초과하면 곧바로 사료

가 끊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줘다가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의 상환능력만 인정된다면 되도록 무담보로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이번 1조원 자금 지원이 담보력이 있는 농가가 받고 있는 대출을 이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담보력이 없어 그동안 자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농신보 보증확대를 통해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복잡한 대출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돈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받았더라도 현재 3%, 1년 일시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이 역시 무이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 지원조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공동자원화 시설 국고보조 확대해야

현재 경북지역 경주 김천, 영천, 경산 등에서 활



▲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배만웅 경주지부장

발하게 액비 살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경북도 협의회에서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었다.

지난해 2007 경북농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우리나라 가축분뇨 자원화의 대표적인 산 증인인 경주지부 배만웅 지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개소당 25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는 지방비에서, 50%는 용자로 각각 충당토록 하고 있지만 재정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 지부장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업비 가운데 국고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지방비 또는 용자를 50%로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 경작자를 통한 사용동의서로 대체해야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액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대도시에서 거주, 현실적으로 농지원부를 제출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경주지부의 예를 들며,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실제 경작자에 대한 액비사용 동의서나 직불보조금제 증명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북 양돈산업 위해 힘쓸 것

이와 함께 경북도청 축산경영과에 올해 경북 양돈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FTA 대응책 마련과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 있는 선진 축산업 기반 구축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며, “산·학·관·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경북축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다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북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돼지만성소모성질환(4P)으로 인한 돼지 폐사 방지 등을 통한 도내 양돈농가에서의 질병 피해 최소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양돈장의 시설·장비, 환경시스템 정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높은 도내 축산업 비중에 맞춰 경상북도는 양돈농가에게 전해수 및 이온수, 자화수 등 모든 수질 개선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한편,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 이유자돈방 설치 지원,





<표 1> 경상북도 양돈분야 주요 지원책

| 주요사업명                | 실치 조건                              | 사업량                         | 지원단가  |
|----------------------|------------------------------------|-----------------------------|---|
| 가축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150, 자부담 60)     | 100대                        | 호당 1대, 3,000천원(보조금액 : 2,400천원)                        |
| 이유자돈용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 | 289백만원(도비 96, 시군비 116, 자부담 87)     | 17대                         | 개소당 1대, 17백만원(보조금액 : 11,900천원)                        |
| 이유자돈방 지원             | 6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210, 자부담 300)    | 30대                         | 개소당 1대, 15백만원(보조금액 : 750만원)                           |
| 양돈분만위생 개선사업          | 325백만원(도비 81, 시군비 211, 자부담 33)     | 5,000셋(셋당 200~300두 자돈 분만처치) | 셋당 65천원(보조금액 : 58,500원)                               |
| 축사단열환경개선 지원          | 1,2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600, 자부담 360) | 100천㎡                       | ㎡당 6,600원(보조금액 : 4,620원)                              |
|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 시스템 정비  | 1,20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420, 자부담 600) | 40개소                        | 개소당 30백만원(보조금액 : 15백만원)                               |
| 축사 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지원  | 45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180, 자부담 90)    | 20기                         | 개소당 1기 20백만원(보조금액 : 16백만원)<br>(돈사 면적 1,650㎡ 이상 우선 지원) |
| 썩든 생산 실용화사업          | 150백만원(도비 180, 시군비 50, 자부담 20)     | 15,000두                     | 10천원/두(보조금액 : 8천원/두)                                  |

분만처치용 위생와이퍼 공급 지원, 축사단열환경 개선 지원, 농가에 적절한 환기시스템 도입과 적정 환기 위한 돈사 리모델링 지원, 천연소독제 이용 상시소독시스템 설치 지원,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지원책을 통해 양돈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타 지역의 돼지고기 및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북도 자체 돼지고기 브랜드 육성을 통해 양돈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있는 양돈산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토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구적인 사료안정대책 마련해야

양돈농가 앞에는 사료값 외에도 FTA와 같은 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각 축산농가들의 몫이라면 사료값 안정과 같은 외부 환경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95%이상 사료를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의해 사료가격이 널뛰기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특별기금을 넘어선 항구적인 사료가격 안정기금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경북 양돈인을 비롯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바라고 있다.

아무쪼록 양돈농가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양돈현장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자금집행으로 이어져 새해 아침에 희미하나마 한줄기 희망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돈**